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1~6/17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심심한생각재우기(업서컬러링북)	누동바	이름다움연	6	꿈을깨면 내가부처	서암스님	정토
2	안부(산승이마음으로전하는)	지안스님	(주)재흥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영광스님,관음 효림	
3	불교기독교를논하다	이제열	모라나우	8	영원한자유익(재개정판)	성철스님	정경각
4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9	눈부신오늘	법상스님	마음의숲
5	아진브람명성론(1)-알아차리기	아진브람	북투더비블	10	아진브람명성론(2)-놓아버리기	아진브람	북투더비블



내면의 깊은 깨달음 찾아 떠난 佛國土 여행

김주일 기자 kimj147@hyunbul.com

깨달음이 있는 여행은 행복하다

장편소설 <천강에 비친 달> (인연 1, 2) <암자로 가는길> 등 불교와 밀접한 글쓰기를 해온 작가 정찬주. 그가 이번에는 부탄, 네팔, 남인도, 스리랑카, 중국 오대산까지 5개의 불국(佛國)을 다녀온 경험과 기록을 담은 <불국기행>을 펴냈다.

이 책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보드나드 스투파, 더르바르 광장, 스와얌부나트 사원, 카사파 왕궁터, 운강 석굴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던 디첸포드랑 승가학교, 파로종, 질루카 사원, 아소카 스투파, 까르마이 꾸탐 사원터, 갈비라 사원, 나후사 등 주요 불교 유적이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오롯이 소개됐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불교 유적을 한 지역의 맥락 안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곳곳에서 우리 역사나 우리말과의 접점을 찾아 밝힌다는 것이다. 작가답게 꼼꼼한 취재를 통해 부탄과 남인도 등지에서 저자는 우리말과의 그들 언어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한다. 네팔의 아소카 스투파를 볼 때는 신라 진흥왕, 고구려 광개토왕, 백제 성왕 등이 닮고자 한 '아우왕(아소카왕)'과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떠올린다. 남인도의 벨라카니와 아요디아에서는 석탈해와 허황후의 고향과 근원을 찾고, 중국에서는 혜초와 의상대사의 흔적을 목격한다.

책 내용은 <삼국사기> <경상도지리지> <삼국유사> <대당서역기> <디파람사> <화엄경> 등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집필됐다. 국내서 구하기 쉬운 서적과 비전문가들이 취재한 인터넷상의 주마간산 식 자료는 현지 지식인들의 이야기와 다소 차이가 났다. 이에 저자는 그간의 오해를 바로잡거나 그릇된 가설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가능한 한 현지 지식인과 인터뷰를 많이해 잘못 알려진 지식과 오보를 바로잡고자 했다.

검증된 사료와 언어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자가 발견한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다섯 나라가 그저 낯선 땅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글은 저자의 감상과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전문 작가의 사진으로 한층 심도 있게 다가온다. 나라별로 이 책에 담긴 저자의 견문을 짚막하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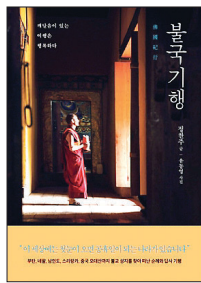
부탄 "그들에게는 불교가 곧 삶이다"

이 세상에는 첫눈이 오면 공휴일이 되는 나라가 있다. 국민의 97퍼센트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부탄이다. 이 곳은 동화적인 나라다.

첫눈이 오면 공휴일이 되고, 살아 있는 꽃을 꺾지 않으려고 화병에는 조화만을 꽂는다. 돈 벌려고 관광객 유치에 애쓰지 않는 대신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고 관광객을 제한한다. 이런 배경에는 국민을 위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국왕들이 있다. 부탄의 역대 국왕들은 권력의 반을 승단에 넘겼고 국민에게 자신이 가진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GNH(국민행복지수)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해왔다. 저자는 특이한 행정 청사인 '중(Dzong)'을



부탄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디첸포드랑 승가학교



불국기행
정찬주 글
유희영 사진
작가정신 펴냄
1만 8천원

5개 불교국가 순례기록 정리

우리역사와 언어 접점 찾아 비교

현지 지식인과 많은 인터뷰 나눈

전문 사진 현지 분위기 생생히 전달

비슷해 탁상 사원, 질루카 사원, 디첸포드랑 승가학교, 치미라카 사원, 키추 사원 등을 둘러보며 불교문화가 훌륭한 정치 지도자와 만나 국민을 위한 아름다운 정책으로 꽃피운 나라 부탄의 독특한 역사와 매력적인 문화를 전한다.

네팔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나라"

네팔은 다양한 소수 종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답게 여러 종교가 어우러진 문화가 특징이다. 국민은 대부분은 힌두교 신자이나 실제로는 시바나 부처 등 다양한 신에 의지하며 산다. 불교와 힌두교의 갈등을 방지하는 '쿠마리'는 네팔 사람들의 지혜롭고 독특한 문화다. 5, 6세에 쿠마리로 뽑힌 여 아이는 초경 전까지 살아 있는 여신으로 대접받는데, 네팔 사람들에게는 종교간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통이다. 저자는 보드나트 스투파, 바그마티강, 더르바르 광장, 아소카 스투파, 스와얌부나트 등을 통해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네팔의 특별한 문화를 엿볼 기회를 선사한다. 특히 최근 지진 피해로 사라진 유적들도 사진으로 볼 수 있어 독자 입장에서 안타까움과 반가움이 교차할 수 있다.

남인도 "석탈해와 허황후 발자취 따라서"

남인도 답사는 아소카왕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동인도를 통일한 아소카왕은 육로와 바다길을 통해 그리스까지 전법사를 보내는 등 부처님 열반 이후 200년 만에 불교를 세계화시킨 진류성왕이다. 아소카왕은 처음에는 잔인한 정복자였으나 수십만 명의 전쟁 사상자를 본 후 생명 존중의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을 따른다. 케랄라주 까르마이 꾸탐 사원은 아소카왕이 보낸 전법사 라키타가 활동한 곳이다. 남인도 지역 왕국들은 아소카왕의 뜻을 받아 전법사 활동을 했으며 불교 융성의 기반을 보장해 주었다.

이에 아소카왕은 부처님법이 남인도에 전파된 것으로 만족하고 굳이 남인도 땅을 정복할 욕구를 느끼지 않았다. 남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아미라바타는 부처가 다녀간 지역이며, 전법사 마하데바가 아미라바타 대탐을 세운 곳으로 아소카왕이 순례를 와서 세운 팔각석주가 있다. 한편 남인도서 저자는 석탈해와 허황후의 흔적을 찾는다. 벨라카니는 신라 6촌장과 석탈해가 떠났던 곳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첸나이 마리나비치에 있는 마을 아요디아 꾸뵘은 허

황후의 고향으로 보이는 곳이다. 벨라카니에는 신라 4대왕 석탈해와 같은 석 씨의 집단 거주지가 있다. 타밀나두주 첸나이 지역의 아요디아에서는 가야국의 문양인 쌍어문이 많이 발견된다.

스리랑카 "기독교 침략 속에서 불교 지켜"

스리랑카는 서구 침략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자가 70퍼센트인 나라다. 450여 년간 이어진 기독교 국가의 지배에도 불교문화가 굳건히 유지된 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스리랑카 불교의 기반이 튼실했다는 방증이다. 스리랑카에는 아소카왕의 딸 상가미타가 부처님이 정각(正覺)을 이룬 인도 부다가야에서 가져온 보리수가 있다 해서 '보리수 사원'으로 불리는 스리마하보디가 있다. 저자는 스리랑카 최초의 절인 이수루무나야 사원, 루안델리세아 대탑, 시기리아 왕궁터, 부처님 치아 사리가 있는 불치사 등을 비롯해 아소카왕의 아들 마힌다가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미힌탈레를 방문하고, 풀룬나루와의 심장이라 불리는 갈비라 사원에서 열반상과 아난존자상의 장관을 목격한다.

중국 오대산 "침착과 욕망을 내려놓다"

중국 불교문화 순례는 우리나라 화엄사의 동생행이라 할 수 있는 대동시 상화염사 대웅보전을 보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5만 1천여 종에 이르는 불상과 보살 등이 있는 무주산 운강 석굴, 현존하는 목탑 중 제일 크고 오래된 불공사 응현목탑, 석가모니 사리가 봉인된 탑일사 대백탑, 일제 전사의 사리 및 가사와 발우가 봉안된 일제사 정령탑, 천년송이 있는 계타사 등을 방문하고 참배한다. 또 당 나라 때 신라 구법승 혜초가 머물렀던 <천발대교왕정>을 번역해 불단에 올렸던 금각사 등을 찾는다. 그런데 중국 여행이 갖는 의미는 저자가 목격한 다수의 불교 유적 자체에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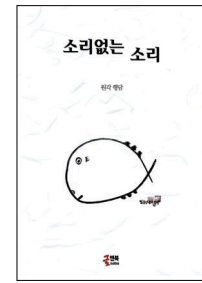
조주선사는 '평상심이 도'라고 말했다. 집착과 욕망을 씻어내라는 가르침이다. 오늘날 여행자들은 대개 무언가를 얻고자 떠난다. 삶의 목적 또한 무엇을 성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저자를 따라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은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禪은 언어 절제하는 切玉刀"

(절옥도)

소리없는 소리

원각 행담 스님 지음 | 글앤북 펴냄 | 1만 3천원



"자신을 만나려거든 자신을 보려거든 그 누군가를 늘 사랑하라. 무명에 가려진 사랑이든 무명을 벗어난 사랑이든 그 누군가를 사랑하라." (자신을 보려거든 부)



강원도 삼척 영은사 주지 원각 행담 스님(사진)이 문단 등단 이후 첫 시집인 <소리없는 소리>를 최근 펴냈다. 책 제목서도 불구하고 불자가 70퍼센트인 나라다. 450여 년간 이어진 기독교 국가의 지배에도 불교문화가 굳건히 유지된 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스리랑카 불교의 기반이 튼실했다는 방증이다. 스리랑카에는 아소카왕의 딸 상가미타가 부처님이 정각(正覺)을 이룬 인도 부다가야에서 가져온 보리수가 있다 해서 '보리수 사원'으로 불리는 스리마하보디가 있다. 저자는 스리랑카 최초의 절인 이수루무나야 사원, 루안델리세아 대탑, 시기리아 왕궁터, 부처님 치아 사리가 있는 불치사 등을 비롯해 아소카왕의 아들 마힌다가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미힌탈레를 방문하고, 풀룬나루와의 심장이라 불리는 갈비라 사원에서 열반상과 아난존자상의 장관을 목격한다.

중국 오대산 "침착과 욕망을 내려놓다"

중국 불교문화 순례는 우리나라 화엄사의 동생행이라 할 수 있는 대동시 상화염사 대웅보전을 보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5만 1천여 종에 이르는 불상과 보살 등이 있는 무주산 운강 석굴, 현존하는 목탑 중 제일 크고 오래된 불공사 응현목탑, 석가모니 사리가 봉인된 탑일사 대백탑, 일제 전사의 사리 및 가사와 발우가 봉안된 일제사 정령탑, 천년송이 있는 계타사 등을 방문하고 참배한다. 또 당 나라 때 신라 구법승 혜초가 머물렀던 <천발대교왕정>을 번역해 불단에 올렸던 금각사 등을 찾는다. 그런데 중국 여행이 갖는 의미는 저자가 목격한 다수의 불교 유적 자체에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에 있다.

며, 언어의 상징성을 통해 삶을 추상하고 반영하는데 주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조시인인 정후 스님(영은암 회주)은 추천사를 통해 "행담 스님의 시들은 번다하지 않아서 좋고 깨달음을 좇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이 간다"며 "행담 시인이 시단의 음악한 도적놈이 되어서 이 우주의 언어를 모두 훑어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부분 이 책에 등장하는 시어들이 직관적이라 이해하기 쉬워 책장이 술술 넘어가지만, 그래도 시집 말미에 엄청난 관동대 명예교수(수필가)·월간 모던포엠 주간가 쓴 '생명의 시학과 묵언의 통섭-행

詩語, 존재 본연에 대한 통찰 심화

산거·산정류 시 등 총 87편 수록

담의 시적 자유로움과 삶의 잠언'을 주제로 시어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한결 이해가 빠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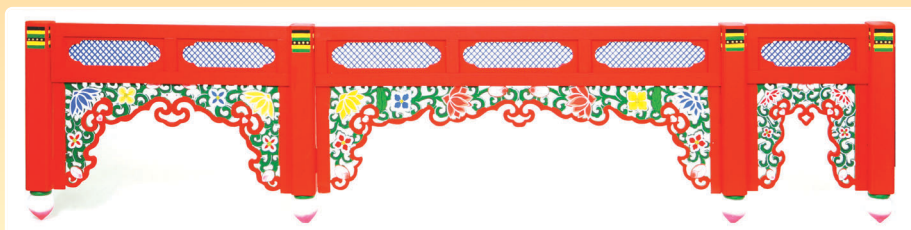
엄 교수는 행담 스님의 시세계를 세 관점으로 나눠 해석했다. "따뜻한 감성과 세계인식 '사유의 깊이와 느낌의 시화' '시적 합리성과 응시' 등이 그것이다. 엄 교수는 글 말미에 밝혀줄 소회란 제언을 통해 "구도자의 신분임에도 행담 스님이 문화를 축으로 운무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헤아려 시집을 묶어 지구선을 위한 일념으로 세상에 내어 놓으니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행담 스님은 글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조예가 깊다. 표지 그림도 행담 스님이 직접 그렸다. 이 그림은 교재를 향상화 한 것인데 단순한 듯하지만 격외(格外)와 해학(諧謔)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렇게 행담 스님의 그림 또한 선기(禪氣)가 물씬 느껴진다. 한편 저자 행담 스님은 두타문화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시인회 회원, 강원문인협회 회원이며, 현재는 조계종 삼척 영은사 주지로 있다. 김주일 기자

목각단청운각

법당장엄 5층 목탑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형등 있습니다.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립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진귀(眞歸) 수행자와 마주앉아 차한잔의 친견만 해도

각종 말기암 환자의

암성 통증 및

고통들이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법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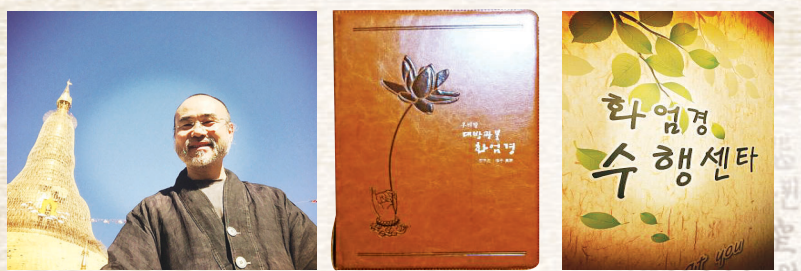
과연 가능한가?

답은 화엄경에 있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찬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터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 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 수행자의 친견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1일 2명만 친견 합니다.

화엄경 수행센터 문의 ☎ 1899-9532